

시정질문(답변)서

【도시국】

□ 질문의원 : 김승동 의원

- 가용토지가 부족한 우리시 입장을 고려하여 상동신도시 자연녹지 지역을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?

(답 변)

- 상동신도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약 822,000m²는 상동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기존의 생산녹지 위주의 보존용지를 시가화용지로 개발하면서 부족한 지구내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도시의 확산으로 인한 인천광역시와의 연담화 방지 및 완충기능 부여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것임.
- 이 지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선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, 건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음.
- 그러나, 상동지역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이미 주변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시설들이 배치된 상태로서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
-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는 이미 2007년 8월 “2020 부천도시기본

계획”을 수립한 바 있고 상동 자연녹지지역은 유원지 부지를 거점으로 부천시외의 녹지축을 형성하는 보전용지로 승인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입장임.

- 따라서, 상동신도시를 포함한 우리시 전체의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차기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시 사회의 변화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되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.